

지역 소식통



정읍시의회, 2016년 회계년도 결산감사위원회 위촉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24일 2016 회계년도 결산감사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는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 감사에 들어갔다.

정읍시 의회는 지난 3월 16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정병선 의원을 비롯하여 전 시청 공무원인 윤삼기, 김영섭, 전 시의원 송현철 일반 시민 윤규열 씨를 결산감사위원에 선임 하였으며,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결산감사 기법을 배우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교육을 수요하도록 하였다.

유진섭 의장은 "결산감사위원들은 다양한 경험 및 학식을 가지고 있어 심도 있고 공정한 결산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시민의 눈으로 우리시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여러분의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얼마나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결산 감사를 통해서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표위원으로 위촉된 정병선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산집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세밀히 파악하겠다.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못된 점은 전파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결산 감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전개

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 상동지구대에서는 증가하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따뜻한 날씨로 바깥출입이 늘어 남에 따라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 예상됨으로, 관내 마을회관에 찾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밝은 옷 착용 및 방어보행 요령 등 교통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였다.

상동지구대 김수찬 대장은 "평소 노인 스스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앞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 심원면 만돌권역 100억원 예산 투입 거점개발 사업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어촌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심원면 만돌권역을 중심으로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70억, 지방비 30억 등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지역특성에 맞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우정 군수는 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월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심원면 만돌권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생활권·경제권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마을 생태 숲 조성, 만돌문화관, 5계절 복합생태공간 등 기초생활 기반 부문, 지역특산물 판매와 로컬푸드체널장 지역소득 증대 부문 소득주도 전담, 계명산 초하류 식재 등 지역경관개선 부문 기타 지역역량강화 부문 등 크게 4부류로 추진 될 예정이다.

그동안 심원면 만돌지역은 청정바

다, 갯벌, 어촌체험마을, 염전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반시설 정주여건, 문화·복지서비스 등 기능이 열악해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중심지 공동화가 지속되어 왔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 속에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돌권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기반시설과 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관광객도 유치하면서 고창군이 전라북도 심락농정과 토탈관광 중심지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최적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5월 1일부터~31일까지 신청·접수

정읍시가 올해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차 지원을 지원한다.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지난 3월 24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기

준 등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대상은 신청일(5. 1.)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국 대학생(단, 졸업생과 대학원생은 제외)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제외)을 받은 사람이다. 희망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정읍시청 홈페이지

http://www.jongup.go.kr) 또는 직접 방문(시청 교육체육과 ☎063.539-5532)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개인 당 지원액이 소액이지만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후 누적 학기에 대한 이차 지원이 계속되는 만큼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전북도민체전 성공 개최 사회단체장 소통회의

부안군은 오는 28일부터 3일 간 관내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실·과·소 및 사회단체장 소통회의를 가졌다.

이번 소통회의는 부안군청 18개 실·과·소와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관내 26개 사회단체가 도민체전 기간 부안을 방문하는 도내 13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부안군을 널리 홍보하고 참가선수 및 응원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마련됐다.

소통회의에서는 13개 시군 선수단 등이 부안군의 넉넉한 인심을 느끼고 만족하도록 안전, 청결, 먹거리 등 6만 군민 최상의 서비스로 손님맞이에 심혈을 다해 다시 찾고 싶은 부안군을 조성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회 개최 전까지 사전에 26개 사회단체와 협력해 전주 시 등 13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자매결연 시군 선수단의 식단 및 숙소

안내하고 각 경기장을 방문해 위문격려 및 편의제공 등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아산면 봉덕마을 2억8000만원 투입 주거환경 개선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어촌 지역 주거 취약시설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전북도의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4000만원을 포함 총 2억8000만원을 투입해 아산면 봉덕마을에 마을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전했다.

그동안 군은 봉덕마을의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봉덕마을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소공원과

마을 들레길 편익시설설치, 안전난간 설치, 버스정류장 2개소 교체 등 주거취약환경을 개선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고향의 정겨운 정취가 느껴지는 친근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봉덕마을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에 걸맞은 마을을 만들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의회, 부안오복마실축제 홍보 '앞장'

산 들 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펼쳐지는 부안오복마실축제에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가 홍보대사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안군의회 군의원 및 직원들은 24일 충남 태안 톨업축제를 찾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축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부안군의회 오세웅 의장은 "군의회는 앞으로도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의 대외적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부안관광을 활성화하고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등 부안군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 말했다. 한편 부안오복마실축제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에서 문화, 예술, 전통을 바탕으로 한소도읍 거리축제로 위도 띠 뱃놀이 재현, 부안 오복마실 걷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구성돼 있으며 전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농지매입비축사업비 20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2017년도에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한다.

매입비축사업의 목적은 이농·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무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농지 매입가격 상한액은 25,000원/㎡(평당 82.64원) 이내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고, 매입면적은 필지당 1,933㎡ 이상 농지이다.

단, 각종개발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예정지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사업비 신청은 정읍지사 농지은행부(530-0314)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The ad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